

노·사·민·정 '4륜 구동'... 車밸리 힘찬 시동



지난달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정찬용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100만명 서명부 전달 출정식'이 열렸다.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조성을 바라는 광주시민 및 사회단체회원과 전남, 대구 등 전국 시·도민 10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24)

제7부-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본격화

(1) 광주공동체 협력의 결실

광주시, 지자체 첫 車산업 육성 조례 제정

지역내 부품업체 맞춤 지원으로 역량 강화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투자 여건 조성

전남·대구·강원 등 전국서 100만 서명 동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광주시가 민선 6기 현안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국내 완성차 기업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시민, 정치권 등 광주 공동체가 서로 무한 협력하고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노사상생 문화를 조성했고, 지역민들은 범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비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 토양 '튼튼' = 윤장현 시장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핵심으로 내걸고 자동차 100만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취임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

해 전국 최초로 자동차산업과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특히 사회 각계 인사 12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기업 방문조사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간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유도하고 연구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연구역량 강화에도 노력해왔다.

◇노사 상생문화 조성도 한 몫 =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안정이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 결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역 내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파트너십 형성으로 협력적인 노사 상생관계로 탈바꿈시켜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다.

기어차 노조에서는 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완성차·

부품사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8개항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노조 공약으로 내걸고 사업지지 현수막을 시내 전역에 게재하는 등 그동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다.

광주시는 사회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민정 대표 20여 명이 참여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열정과 열연 반영 = 광주시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각계의 열망을 모은 100만명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에는 가차도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청년들, 고향을 떠난 향우들이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빛동맹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대구시와 인접 전남 5개 시·군, 강원도 등 타 시·도민도 동참하는 등 시민들의 열망이 한껏 표출됐다.

서명운동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연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향후 노·사·민·정이 하나 되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실현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產者有恒心)

<직업이 있어야 마음이 떳떳하다>



김집중

중국의 역사를 보면 주(周)왕조가 낙양으로 천도한 BC 770년부터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 약 550년 동안을 춘추전국시대라고 한다.

좀 더 구분 지어보면 당시 제후국의 하나였던 진(晉)나라가 한·위·조나라로 분할되어 제후국이 된 BC 4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시대를 춘추시대(春秋時代)라고 하고 그 이후를 전국시대(戰國時代)라고 한다.

중국 유교철학의 비조 공자(BC 551 ~ BC 479)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BC 372 ~ BC 289)는 전국시대 사람이다.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제자에게 공자의 학문을 배우게 된다.

맹자는 왕도정치(王道政治)가 당시의 제후국 간의 분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각 나라의 제후들에게 왕도정치를 시행하라고 유세하고 다녔다.

BC 320년경 양(梁)나라 혜왕을 시작으로 제(齊)·설(薛)·송(宋)나라를 거쳐 등(滕)나라 문공(文公)을 만나게 된다.

'맹자 등문공편'을 보면 그때 등문공을 만나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產者有恒心)'이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도 널리 인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맹자는 유명한 '정전법(井田法)'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직업(생계수단)이 있는 사람만이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무항산자유항심(無恒產者無恒心)', 즉, '일정한 직업(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은 떳떳한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수단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관심사였을 터이고, 맹자는 등문공에게 정전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바로 얼마 전 우리 시가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3030억원 규모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우리 시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계획과 이 사업을 끌고 갈 광주형 일자리를 결합하여 산업의 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혁신모델을 제시한 것이 주효하여 국가 정책으로 채택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국내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모범적 사업으로 인식한 것이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에 기인한 것 또한 두 말할 나위없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를 보탠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책임경영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의 형성과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적정임금을 담보한다.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 내는 것이다.

광주만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출발한 일이 한국 사회 변화에 불결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한 단계상의 도전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대한 관문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는 돈을 조금 덜 받되 적게 일함으로써 직무만족 및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몰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이 가능하여 안정된 경영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적으로는 1만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주지역은 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產者有恒心)!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맹자의 경구가 광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념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